

# 김 교육감 “코로나 모니터링 철저히”

### 제주도 사건 언급, 적극적 대응 주문... 수능출제 교사참여 방안도 제안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자폐성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제주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중증장애 학생을 학교에 나오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나오게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 같은 사안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과에서는 즉각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소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하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 비상근무자들이 연간 받을 수 있

는 임금총액을 확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연간근무 총시간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을 확보해주는 것은 그들의 가계소득 및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서 “어렵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수능 연기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수능

출제 방식도 교수에서 교사로 넘어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이 연기될 경우 출제위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수능 본 시험 출제에 한달 이상 걸리는데 출제위원들로 지명된 교수들이 하반기 개인일정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이를 계기로 수능 출제를 교사들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내달 2일은 ‘전북 학생인권 날’

### 학생인권교육센터, 공모전... 내달 24일까지 접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공모전을 개최한다. 23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을 기념하고 학생인권 관련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0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 날로 지정,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UCC(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림(학생) ▲사진(학생, 교직원, 학부모) ▲글(학생) ▲서각·캘리그래피·서화(교직원, 학부모) 등 5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공모전 주제는 두 가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주제

나, 또는 존중 표현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내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작품접수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로 작품성·전달력·활용성 등을 심사해 오는 5월 4일 공문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35팀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자는 “학생인권 관련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4월 2일을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재치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접수돼 인권교육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원광대 HK+ 지역인문학센터 온라인 인문강좌... 20일부터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온라인 인문강좌 ‘인문백제3’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는 지역 인문 자산을 활용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온라인 강좌로 변경했다.

지난 20일부터 유튜브 ‘원광대 HKplus 합성인문학TV’에서 진행되는 인문백제3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유튜브 검색창에서 ‘합성인문학’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백제지역에 위치한 박물관 중심의 지역 유적과 유물을 주제로 총 6명의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현숙 공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무령왕릉의 흔이 살아 숨 쉬는 공간 : 국립공주박물관’, 최경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백제 불교 문화의 발자취와 참모습 : 국립익산박물관’,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의 ‘백제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사비백제 왕도 : 국립부여박물관’, 한정화 부안정자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문화와 역사의 천년 거울, 고려청자 : 부안 청자박물관’, 안연진 원광대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시대의 감성을 담은 공간 : 원광대학교 박물관’, 문이화 마한백제연구소 학예연구사의 ‘백제문화의 미래와 그 활용 방안’ 강연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HK+ 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백제 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역사와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영민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7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추가로 신축한다. 지난 23일 총장실에서 청원대학교, 전북미래학사주식회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대, 752명 규모 생활관 추가 신축

### 4차 임대형 민자사업...지하1층, 지상10층 규모 2022년 완공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7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추가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7년 등 3차례에 걸친 BTL 사업을 통해 5천여 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이번 4차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관과 학생 수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총장실에서 청원대학교, 전북미래학사주식회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학은 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승인, 감독 등을 하고, 전북미래학사는 설계와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연면적 13,506㎡ 규모에 7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생활관을 확보하게 된다. 총 사업비 275억7천여 만원이 투입되며, 치과대학 4호관 인근 부지에 올 7월 착공해 202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축되는 생활관에는 1인실 54실과 2인실 379실(658명 수용)

등이 조성되고, 기혼자들을 위한 18실(36명 수용), 장애인을 위한 4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전북대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HRC)’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학비 경감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총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생활관은 6천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생활관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서해진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에 마스크 기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본교 국제협력기술과를 졸업한 서해진 씨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례없던 마스크 50매를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좌부터 홍순직 총장, 서해진 졸업생, 김미선 국제협력기술과 교수.

2017년도에 졸업한 서씨는 “NGO 단체 ‘더멋진세상’에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주변 지인들과 함께 마스크를 모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미선 교수(국제협력기술과)는 “서해진 졸업생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쌀 등을 기부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홍순직 총장은 서씨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을 전하며 “코로나19로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다고 낙담할 함께 아끼고 서해진 졸업생처럼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면 코로나19도 빨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생동아리 모집... 수학 100팀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과학, 수학, 발명 분야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 수학, 발명 분야 학생동아리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키우고 창의, 탐구, 인성 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의 열린 사고력 및 잠재 능력을 계발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분야별 과학동아리 20팀, 수학동아리 100팀, 발명동아리 20팀을 모집한다. 과학동아리는 초등 10팀·중등

10팀이며, 수학동아리는 주제 탐구 분야 50팀(초, 중, 고), 활동 중심 분야 50팀(초, 중, 고)이고, 발명동아리는 초등 10팀, 중등 10팀이다. 학생동아리는 같은 학교 소속의 지도교사가 있어야 하며,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의 도움 아래 학생 자율적으로 구성된 학생동아리로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3월 23일~ 4월 24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5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